

연구논문

감정적 유대를 구축하는 문화의 형성을 위하여: 프로이트의 동일시 이론을 중심으로*

김서영**

〈국문초록〉

프로이트는 「왜 전쟁에 반대하는가」라는 글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정적 유대', 즉 '동일시'라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남근, 거세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정신분석학의 공리를 프로이트의 동일시 개념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더욱 실천적인 이론적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 구상되었다. 이 과정에서 프로이트의 동일시 이론과, 이에 대해 세분화된 설명을 제시하는 라캉의 동일시 세미나를 살펴보고 이를 현상분석에 접목시키고자 한다. 또한 정신분석학이 강조해 온 언어분석이 어떻게 동일시 이론과 접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자 한다. 논문의 궁극적 목표는 동일시 이론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정신분석학이 현상분석의 실천적인 이론적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제어: 정신분석학, 프로이트, 라캉, 동일시, 감정적 유대

* 이 논문은 2016년도 광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부교수(fidus@kw.ac.kr)

© 2016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들어가며: 정신분석학의 새로운 공리로서의 동일시

초기 페미니스트들은 남근 선망, 거세 등 정신분석학적 개념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정신분석학을 여성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전제로 이론화된 남성중심주의적 학문으로 간주했다. 라캉(Lacan)의 정신분석학 역시 팔루스에 대한 강조로 인해 남근중심주의적 사유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록 각 영역의 입장을 뚜렷이 구별하는 이와 같은 논쟁은 이후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해석의 내용과 형식이 더욱 다양해지며 점차 극복되어 왔지만, 여전히 정신분석학이 가진 남근중심주의적 경향에 대해서만은 많은 여성주의 학자들에 의해 비판되는 경향이 있다. 이해진은 「아버지에 갇힌 주체에서 어머니로 열리는 주체」에서 프로이트(Freud)의 구성론에 의해 “페미니스트들이 성별 위계와 여성 차별의 기반이 생물학적 결정론을 과열시키고 주체의 가변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프로이트는 주체의 형성과정에서 “어머니를 삭제하고 아버지 혹은 남근을 유일한 원리로 동원하여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한다(2011: 131-132). 손 호머(Sean Homer)는 정신분석학과 페미니즘의 연대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라캉주의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2006: 218). 재클린 로즈(Jacqueline Rose)는 정신분석과 페미니즘을 한편에 배치하는 중심적인 근거는 두 영역이 모두 “안정적인 정체성”에 대해 저항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한다(호머, 2006: 217). 이해진은 여성으로 태어나거나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발달과정에서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프로이트의 주장은 페미니즘이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전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언제나 아버지와 남근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2011: 133).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

는 프로이트가 “외디푸스적 음모”를 피했다고 비판했으며 루스 이리가라이(Luce Irigaray)는 남성의 기준 속에 포획되지 않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이해진, 2011: 138). 조안 리비에르(Joan Riviere)의 가면으로서의 여성성에 대한 논의 역시 프로이트의 단순한 구도에서는 제시할 수 없는 지평이다.

그러나 만약 시선을 옮겨, 정신분석학을 정의하는 근본 개념들의 위계 자체를 변경한다면 우리는 더욱 실천적인 정신분석학적 조망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고정된 생물학적 결정론의 시선을 해체할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남근중심주의적 시선에도 균열을 내는 실천적 이론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개진할 것이다. 정신분석학은 그러한 해체 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열린 이론이며, 특히 프로이트의 동일시 이론은 감정적 유대와 힘의 이동이라는 연동 속에서 저항의 실천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로써 논문은 정신분석학의 시각이 남근중심주의적 시선의 대극에 배치될 수 있으며 그것은 결코 남근질서에 예측된 원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새로운 이론적 지평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나 남근은 이전의 무게를 잃게 된다.

이동옥은 아버지의 권위나 이름이 이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새로운 아버지들은 명령하고 처벌하는 역할이 아니라 성찰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즉 가족관계는 더 이상 명령과 복종으로 구성되는 수직관계가 아니며 그보다는 함께 말하는 수평 관계로 변화되었다(2014: 155). 기존의 비판 및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정신분석학의 모든 정리들이 비롯되는 근본 공리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강조와 그에 대한 비판으로 점철된 정신분석학과 타 영역의 관계는 이제 근본 공리의 변화에 의해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정신분석의 기반을 동일시 이론에서 찾고 있다. 타인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타인의 고통이 내 마음의 고통이 되는 감

정적 유대가 바로 동일시이며 우리는 현재 232만 명이 집결한 촛불 집회 속에서 그러한 유대를 경험하고 있다. 모르는 이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마음의 풍경을 설명한 동일시 개념은 결코 남근중심주의적인 편협한 정신분석학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는 감정의 구조를 설명하는 삶의 이론이다. 더 나아가 정신분석학은 그러한 시민의 감정적 유대에 생채기를 내는 구조를 정밀히 분석해내는 도구이기도 하다. 세밀한 분석은 진정한 감정적 유대를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논문은 이와 같이, 기존의 비판과 상이한 방식으로 정의된 정신분석학의 근본 전제를 프로이트의 동일시 개념을 중심으로 소개할 것이다. 프로이트는 전쟁을 막는 유일한 수단으로 ‘감정적 유대’를 제시하는데, 그는 이를 ‘동일시’라는 개념으로 이론화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왜 전쟁에 반대하는가」를 통해 우리는 프로이트의 동일시 개념이 전쟁과 범죄를 예방하는 도구로서 제안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논문은 동일시 개념이 왜 정신분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이며, 그것이 어떤 실천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며, 이 과정에서 프로이트와 라캉의 동일시 개념을 연동시켜 더욱 실천적인 감정적 유대의 기반을 구성하고자 한다.

논문의 목적은 우선 정신분석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지평을 제시함으로써 정신분석학을 현상분석을 위한 실천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프로이트와 라캉의 동일시 개념을 소개하여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가능해지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프로이트의 동일시 개념이 ‘감정적 유대’를 중심으로 소개된 적은 없으며, 라캉의 동일시 세미나 역시 출간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는 동일시 개념을 중심으로 전체 논의를 구성하는 동시에, 그 결론이 추상적인 이론적 사변에 그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모든 이론적 논의들을 구체적 현상분석을 중심으로 전개

하려고 노력하였다.

2. 오이디푸스와 팔루스를 넘어서

윤지영은 「욕망의 시학은 가능한가: 잉여(surplus)와 퀴어성의 연계성에 대하여」에서 정신분석학을 “외디푸스 콤플렉스에 갇힌 욕망”, “구조-기능에 매몰된 주체”, “욕망의 구조학”(2013: 121)과 연관 지으며 그 대극에 배치되는 “저항적 혁명적 주체”와 “욕망의 시학”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정신분석학은 저항적·혁명적 주체를 생산할 수 없으며 그러한 과정을 도모하는 동력이 될 수도 없다. 정신분석학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구조 속에 매몰된 이론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위의 논문에서, 특히 라캉의 정신분석학은 “구조적 언어화의 장”(122)으로 정의되며, 그것을 벗어나려는 시도는 “욕망의 탈 외디푸스적 기획”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언어와 대립되는 라캉그의 특성을 언급하는 논문의 첫 번째 각주에서도 지적되듯이, 라캉은 끊임없이 구조 너머의 틈, 오이디푸스의 치유, 저항적 주체에 대해 논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라캉의 재해석이다. 윤지영의 말대로 라캉의 정신분석학이 주이상스의 상실과 구조와 오이디푸스를 강조한다면, 왜 라캉이 진정한 프로이트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아심리학자들을 비판했겠는가? 자아심리학자들이야말로 윤지영이 비판하는 정신분석학의 속성을 내화한 이론이지 않은가?

라캉은, 내담자를 이자관계라는 구조 속에 가두고 모든 틈과 어긋남을 봉쇄하는 자아심리학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배반으로 간주했다. 그의 두 번째 세미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라캉이 오이디푸스에 대

해 이야기하는 것은 콤플렉스와 그 속에 갇힌 주제에 대해 언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오이디푸스라는 인물의 치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 세미나에서 라캉은 “정신분석가들은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라는 비극에서와 같이 『오이디푸스 왕』을 넘어서 실현되는 영역에 익숙해져야 한다”(1991: 210)고 말한다. 정신분석학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갇혀있다거나 남근중심주의에 편향된 이론이라는 주장은 라캉이 “『오이디푸스 왕』을 넘어서 실현되는 영역”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라캉은 그 너머의 영역이 바로 오이디푸스가 치유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한다. 그가 온전한 그 자신이 되는 곳, 오이디푸스의 정신분석이 종결되는 곳이 바로 콜로노스다.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서 오이디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내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 인간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오이디푸스의 정신분석이 종결되는 순간이다 - 오이디푸스의 정신분석은 그가 자신의 체면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콜로노스에서만 끝날 수 있다(Lacan, 1991: 214).

이것이 바로 라캉 자신이 제시하는 욕망의 탈 오이디푸스적 기획이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넘어 실현되는 오이디푸스의 치유는 정신분석학적 치유의 궁극적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순간 오이디푸스는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무죄를 당당히 주장하고 신비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빛 속으로 사라진다. 오이디푸스의 죽음은 돌연사가 아니다. 그는 가장 용기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시간에 맞이하고 있다. 즉 그는 『오이디푸스 왕』에서와 같이 운명과 신과 목동을 원망하는 대신 이제 운명을 당당히 감싸 안으며 모든 책임을 기꺼이 떠맡는다. 라캉은 이렇게 오이디푸스가 가장 주체적인 인간이 되었을 때 그의 정신분석이 종결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

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자신이 믿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정신분석학은 욕망을 따르는 이들의 이야기를 드러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 도구이다.

사실 라캉은 그의 세미나와 글을 통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욕망을 따르는 주체의 여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오랜 시간 설명해 왔다. 또한 1952년 공개 세미나를 시작할 때부터 그는 독립적이지 못한 인간의 정신 구조를 비판해왔다. 1953년 로마담론에서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를 제안한 배경 역시 자신의 마음속에 갇힌 인간이 안주하는 허상과 그러한 허상을 찢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실천적 주체의 구조를 정신역동 속에서 세분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위에서 언급한 대로, 1954-1955년에 진행되는 두 번째 세미나에 이르러 오이디푸스의 정신분석이 콜로노스에서 종결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캉은 보로메오 매듭 모형을 통해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가 공존하는 현실을 묘사했으며, 현실 속에서 전진하는 주체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세미나 2권에서부터 『도둑맞은 편지』의 분석을 소개했다. 이 소설을 분석하며 라캉은 프로이트적 주체란 현실이 결코 닫힌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미지의 세상 향해 전진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주장은 프로이트와 그의 동일시 이론으로 다시 돌아갈 때 비로소 더욱 강렬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동일시 이론에 의해, 감정적 유대 속에서 삶의 방향으로 전진하는 여정이 설명되기 때문이다.

라캉이 남긴 한권의 저서인 『에크리』(*Écrits*, 1966/2006)는 『도둑맞은 편지』에 대한 더욱 치밀한 분석으로 시작된다. 라캉은 자신의 책이 반드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이 글이 프로이트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제시하는 성숙한 주체는 결코 멈추지 않으며, 특정 해석에 고착되지 않으며,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다. 남근이나 아버지의 이름은 『에크리』에서

눈에 띄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심지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지도 않다. 라캉은 결코 정신분석학이 거세의 법을 중심으로 한 남근중심주의적 이론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프로이트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라캉의 『에크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도둑맞은 편지』 분석으로 시작된 이 책은 거울 단계의 허상에 대한 설명을 지나 ‘진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논리적 시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그 후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언어와 말의 장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며, 의식을 통해 무의식이 말하는 방식이 분석된다. 이것은 무의식의 영역 중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밖으로 드러나는 기제를 설명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환자를 의미의 영역에 가두는 치료의 방식을 비판하는 「소위 표준 치료라 불리는 것에 대한 변주들」이 소개되며, 프로이트의 부정 개념을 헤겔적 부정 개념으로 설명하는 이폴리트의 주장과 이에 대한 라캉의 답으로 이어진다. 이 부분에서 라캉은 부정을 자아의 저항을 넘어선 개념으로 구축하고 있다. 라캉은 문자와 기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며 자신들을 알고 있는 존재, 말할 수 있는 존재로 가정하는 분석가들의 실수에 대해 실천적인 지적과 조언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무의식이 인간을 통해 말하는 과정을 포착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한다. 그 후 마침내 거세 콤플렉스 개념이 등장하는 「팔루스의 의미」가 나오는데 이 부분 역시 남근적 질서와 의미와 거세의 법이 중심에 배치되지 않는다. 『에크리』는 앙드레 지드(André Gide)와 편지에 대한 논의, 칸트(Kant)와 사드(Sade)의 연계에 대한 조사, 욕망의 그래프와 주체의 전복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의식, 충동, 진리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된다. 이 중 팔루스에 대해 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팔루스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자.

「팔루스의 의미」에서 라캉은 “모든 분석 현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로 기표라는 개념”(578)이라고 강조한다. 라캉에 따르

면 “프로이트의 발견에 의해 기표와 기의라는 것이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가가 밝혀졌다”(578). 그가 프로이트의 발견이라고 부른 것은 물론 무의식을 뜻한다. 라캉은 기표란 인간이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 속에서 그리고 인간을 통해 말하는 것”(578)이라고 설명한다. 언어는 기표에 의해 직조된 영성한 사슬이며 의미란 기표들이 은유와 환유라는 두 개의 축을 통해 생성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언어의 중심은 결코 의미가 아니며 의미를 깨우는 자리, 즉 ‘그것’이 말하는 타자의 자리라고 말한다. 주체 내부의 타자의 자리란 상징계 자체를 의미한다. 물론 그 중심에는 기표 또는 팔루스가 있다.

라캉은 “팔루스는 기표다”라고 설명한다(579). 그렇기 때문에 의미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일 뿐이지 그 자체를 하나의 의미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라캉에 의하면 팔루스는 근본적으로 “상상계적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좋은 대상, 나쁜 대상, 부분 대상과 같은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 또한 그것은 남근이나 클리토리스와 같은 기관으로 간주될 수도 없다. 팔루스는 욕망의 길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기표 중 “가장 중요한 기표”(581)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하나의 대상이 아닌 팔루스가 어떻게 욕망의 도래를 준비하는 특권적 기표의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 라캉은 이것이 오직 팔루스가 베일에 가려져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더욱 정확히 표현하여 팔루스는 스스로 “사라지며 일련의 효과를 창출하는 [해결적] 지양(Aufhebung)으로서의 기표”(581)다. 그것이 대상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 주체의 중심에 분열(Spaltung)이 생긴다. 그것은 주체가 주체 중심에 존재하는 타자의 자리를 대면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프로이트의 설명 속에서 팔루스는 어머니가 원하는 것으로 상징되거나 아이가 가진 것으로 가정되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은 어머니도 아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이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징계 중심의 분열과 어긋남이다.

사랑에 대한 요구는 욕망에 의해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욕망의 기표가 낮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욕망이 실제로 팔루스를 향한 것으로 보일 때 아이는 어머니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팔루스가 되고자 한다.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 [기관이 팔루스에 해당할 것이라 믿으며 그것을 타자에게 바치는데, 타자의 욕망 속에서 아이는 일종의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는 욕망에 내재하는 분열을 느끼게 된다(Lacan, 1966/2006, 582).

욕망은 상징계로 진입한 이후에만 그 논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틈, 분열이 있을 때만, 즉 완전함과 전능함이 상실될 때만 무엇인가를 욕망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팔루스는 바로 그 상실을 나타내는 기표다. 상실된 것, 부재하는 것, 그러나 그것의 존재를 가정할 때, 즉 베일로 그것을 가렸을 때 상징계의 연쇄가 촉발되는 출발점, 바로 그것이 팔루스다. 그러므로 그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며 실제 기관이 아니며 남성의 특권을 강조하는 특권적 대상이 아니다. 그보다 그것은 부재에 의해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부재하는 특권적 기표라 할 수 있다.

팔루스는 사랑에 대한 집착과 권위에 대한 동경과 사랑을 중심에 둔 경쟁의 서사들 중심에 존재하는 듯 보이는 대상이지만, 사실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기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거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 거세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실한 것으로 느끼는 대상은 애초에 한 번도 우리가 소유한 적이 없는, 즉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다. 상징계 속 욕망의 현실이란 그러한 상실을 전제로 구성된 기표의 연쇄다. 정신분석학은 타자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듯 보이는 욕망의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서사로 되찾는 주체의 여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여정에서 좌절하고 절망했던 이들이 프로이트를 찾았고, 다시 분열된 존재로서 자신의 욕망을 찾아 일어서는 과정이 바

로 정신분석적 치유다. 프로이트는 그 중심에 동일시 개념을 배치했다.

3. 프로이트의 동일시 개념

「왜 전쟁에 반대하는가」(1933)는 프로이트와 아인슈타인이 서신교환을 통해 충동에서 문화로 나아가는 길과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 기록이다.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하면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간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프로이트가 제시한 답은 ‘감정적 유대의 형성’, 즉 ‘동일시’다. 그것은 전쟁을 막는 길뿐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정신분석학의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이 서신에서 인간의 충동을 통제하는 길은 야만으로부터 문화로 나아가는 여정과 동일하며 그것은 감정적 유대에 의해 가능해지는 발달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감정을 공유”하는 집단을 가정해야 하는데, 그 집단의 진정한 힘의 원천이 바로 “감정적 유대”(emotional ties, Gefühlsbindungen)다. 동일한 목표를 가진 집단의 경우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감정적 유대는 더욱 강화된다. 그는 정신분석학에서 감정적 유대를 일컫는 개념이 바로 “동일시”(identification, Identifizierungen)라고 소개한다. 여기서 프로이트는 그러한 공동체의 힘은 정의가 아닌 폭력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의와 폭력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문화라고 설명한다. 프로이트는 문화의 대극에 속하는, 인간 내부의 근원적 충동이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경우 전쟁을 도발하는 자들과 폭력적인 야만에 매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러한 “중오와 파괴의 충동”(209)을 죽음 충동으로 정의한다.

프로이트는 인간 내면의 근본적 충동을 에로스와 공격/파괴 충동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보존하고 연대하는 충동이며 후자는 파괴하고 살해하는 충동이다. 그것은 사랑과 미움이라는 짝패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프로이트는 이 두 충동이 일상적으로는 서로 결합한 상태에서 활동한다고 말한다. 즉 에로스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로스가 개입하면 야만적 충동의 목표가 변경된다. 그는 충동이 대극적 충동과 전혀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온전히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지만, 그러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파괴 충동의 결정체를 “죽음 충동”(211)이라고 명명한다. 1920년 『쾌락원칙을 넘어서』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죽음 충동은 무생물로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으로서, 생명의 보존이라는 에로스의 작업과 대립되는 목표를 가진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죽음 충동의 경우에서도 파괴나 공격과 다른 기능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죽음 충동이 내면화되는 경우, 그것이 양심이라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자아가 양심이라는 기관을 만들기 위해 그 전신으로 삼아 동일시하는 외부 대상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보통 그 대상은 부모다. 우리는 그것을 교육, 발달, 성장이라고도 부른다. 그렇다면 전쟁과 범죄의 원인이 되는 죽음 충동과 그 목적과 방향이 전회된 죽음 충동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분리를 촉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프로이트는 이와 같이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은 에로스의 유무에 따른 것이라고 답한다.

프로이트는 “전쟁에 맞서 싸우는 간접적인 방법”은 “그 적수인 에로스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212). 인간들 사이의 “감정적 유대를 강화하는 모든 것들은 전쟁에 맞서 싸우게 된다”(212). 여기서 감정적 유대란 성적인 목적은 없지만, 마치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에서와 같은 유대를 이루는 경우를 말하며, 우리는 그러한 교감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종교의 가르침에서 관찰할 수 있다. 두 번째의 감정적 유

대는 더욱 엄밀한 의미에서의 동일시에 의한 것이다.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동일시를 통해 감정적 유대를 이루는 경우, 그들은 공격 충동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직접적 설명과 달리 종교와 관련된 첫 번째 감정적 유대의 경우 역시 우리는 동일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왜 전쟁에 반대하는가」를 집필한 후 7년이 지나 『모세와 일신교』를 출간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종교와의 동일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집의 내용을 감안할 때 우리는 위의 두 영역을 모두 동일시와 감정적 유대로써 설명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동일시 개념은 전집을 통해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왔다. 동일시를 담당하는 중심 영역은 자아로서, 자아는 다양한 외부 개체의 자아들과 동일시하며 외부 세상과 내부 충동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과도한 동일시 역시 미흡한 동일시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해가 된다는 점이다. 미흡한 동일시란 문화로의 여정이 차단된 상태인 반면, 지나친 동일시는 가학적 초자아의 명령에 자아가 억압되는 경우를 뜻한다. 모자라도 안 되고 지나쳐서도 안 되는 것이다. 대상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능력은 에로스의 작용에 가장 근원적인 것이지만, 지나친 동일시는 자아의 주체성 자체를 침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과도한 양심의 명령은 개체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다.

「왜 전쟁에 반대하는가」의 결론에서 프로이트는 문화의 발전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문화는 “충동의 목표를 전치”시키고, 충동의 분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그러므로 문화의 발전을 “축진하는 모든 것은 동시에 전쟁을 막는 효과를 창출한다”(215). 야만에서 문화로 나아가는 길은 조절되지 않은 충동의 혼돈에서 에로스의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그것을 도모하는 기제가 바로 감정적 유대, 즉 동일시다.

그렇다면 감정적 유대를 촉발하는 계기와 원인은 무엇일까? 프로이트는 ‘억압’에서 그 답을 찾는다. 내 욕망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러한 억압과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감정적 유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기원으로 프로이트는 “남성과 여성, 부모와 자식 (...) 승자와 패자 (...) 주인과 노예”의 구분을 지적한다(1933: 206). 그러한 구분 속에서는 언제나 힘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것이다. 나와 동일한 억압을 받는 타인을 만나 서로의 상황에 공감하고 서로의 슬픔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게 된다. 프로이트는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구성원들을 위해 법이 제정되고 그들을 위해 집행되는 상황에서 피지배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잃게 된다”(206)고 말한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지배를 받는 이들이 “불평등한 정의를 평등한 정의”로 다시 세우기 위해 힘을 합칠 수도 있다. 만약 집단의 힘이 커지면 폭력으로 정의되던 그들의 힘이 이제 정의로 정립된다. 프로이트는 이를 “힘의 이동”(206)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공감과 분노에 의해 촉발된 감정적 유대로부터 현실의 변화가 도래한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날 저녁 (JTBC 뉴스룸)을 시작하며 손석희 앵커는 “234대 56, 헌정사에 영원히 남을 숫자들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만들어낸 숫자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발표했고 12월 첫 주 그 여파로 탄핵에 대한 여야 반응이 극명히 대립하며 탄핵 추진 과정에 제동이 걸린 듯 보였다. 그러나 12월 3일 개최된 제6차 촛불집회에는 232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이를 반영하듯, 6일 후 이루어진 탄핵 표결에서는 일반적인 예측보다 더욱 많은 수인 234표의 찬성표가 나오며 탄핵이 가결되었다.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감정적 유대를 이룬 시민들은 동일한 분노를 공유했고, 마음을 나누었으며, 같은 것을 희망했다. 손석희는 당일 <앵커브리

평)에서 우리가 야만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한다. 2014년 4월 16일, 이미 우리는 시민과 어떤 교감도, 어떤 감정적 유대도 맺지 않는 이들의 존재를 경험했으니 말이다. 강의 시간에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학생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문득, 세월호 아이들도 지금쯤 저 얼굴들로 저 눈빛들로 어딘가에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었을 텐데 생각하며 다시 목이 멘다. 우리 눈에 그들이 보인다. 감정적 유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외치고 함께 싸우는 이유일 것이다.

정신분석학은 결코 남근중심주의를 옹호하는 단힌 이론이 아니다. 진정한 이론적 연대를 위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넘어 새로운 공리 위에 정신분석을 재구축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동일시 이론이다. 남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다른 사람의 아이가 내 아이가 되는 일, 그것이 바로 동일시의 과정이다.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 가슴에 사무치고, 그의 상실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감정적 유대의 결과다. 정신분석학은 바로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기반이자, 더 나아가 감정적 유대를 이론 이들이 정의로운 힘의 이동을 이루어내기 위한 이론적 도구다. 라캉을 통해 이 실천적 도구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자.

4. 라캉의 동일시 개념의 함의

라캉은 1961년-1962년에 진행된 『동일시』 세미나에서 소타자와 대타자의 차이를 중심으로 프로이트의 동일시 개념을 더욱 정교하게 설명하고 외부의 대상을 자아의 그릇에 받아들이는 동일시의 과정을 세분화한다. 프로이트는 자아가 부모를 동일시하여 내화하는 조직체를 자아이상 또는

초자아라 불렸으며, 내 몸 같이 느껴지는 외부의 대상을 이상적 자아로 정의했다. 물론 이상적 자아의 궁극적 대상은 어머니다. 라캉의 동일시 세미나는 기표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러한 프로이트의 지도를 체계화한다. 강웅섭(1999)이 설명하듯, 라캉은 『동일시』 세미나에서 동일시의 종류를 상상적 동일시, 상징적 동일시, 환상적 동일시로 구분한다. 세 번째 동일시는 실제적 동일시라고 할 수 있다. 세미나의 많은 부분은 위상학적 모형 속에서 틈, 어긋남, 공백의 위치를 찾고 그 구도를 설명하며 그것이 유지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할애되는데 이것은 세 번째 동일시에 관련된 다. 실제적 동일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차원에서, 상상적 동일시가 시작되는 궁극적 대상인 어머니가 실제적 대상(대상 a)으로 고양되며 상징계적 질서 속에 존재하는 부재, 틈, 공백, 결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백이야말로 개별적 주체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주체 속 보물로서, 그것에 의해 자율과 자유와 변화가 가능해 진다.

그렇다면 감정적 유대로 정의된 프로이트의 동일시 개념과, 결여를 중심으로 구축된 라캉의 동일시 이론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라캉의 동일시 이론을 통해 프로이트의 동일시 개념을 조망할 때 우리는 감정적 유대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게 된다. 상상적 동일시를 중심으로 하는 감정적 유대와 상징적 또는 실제적 차원으로 나아가는 감정적 유대는 전혀 다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자는 폐쇄적 구조 속에서 모방에 의해 이루어지는 동일시로서, 지배하는 동일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억압하는 동일시로 귀결될 것이다. 후자는 문화의 방향,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일시로서 인간과 인간의 감정적 유대에 의해 외연이 넓어지는 에로스적 확장을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라캉의 동일시 구분이 기표를 중심으로 설명된다는 것인데, 그 말은 동일시 이론에서도 정신분석학의 가장 근원적인 방법론인 언어분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에 다름

아니다.

라캉은 이 세미나를 시작하며, 지난 세미나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기표에서 [세미나를] 시작”한다며 동일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가 기표와 가지는 관계”(2008: 11)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그는 “주체라는 전통적인 철학적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표의 존재와 그 효과뿐”(14)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언급하는 이유는 데카르트의 주장과 달리 정신분석학에서 사유하는 실체는 기표이기 때문이다. 주체가 기표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기표가 주체를 대표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결코 주체의 구체적 발화를 배제한 채 감정적 유대 또는 동일시 이론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 모든 동일시와 모든 감정적 유대는 언제나 구체적 발화 행위에서 비롯되며 실천된다. 또는 구체적 발화를 분석할 때만 어떻게 동일시에 성공했는지, 또는 왜 동일시에 실패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범죄와 전쟁을 막는 도구가 감정적 유대라면, 우리는 범죄나 전쟁과 같은 재난이 초래되는 이유를 감정적 유대의 부재, 즉 동일시의 실패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기표에 대한 조사가 담당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범죄자의 진술에서 우리는 그 범죄자를 통해 말하고 있는 내부의 인물들과 과거의 상황들을 분석해낼 수 있다. 즉 정신분석학은 모든 대화에서, 주체가 그의 기표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표에 의해 주체가 말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 후 그 이면의 진실을 분석한다. 내 안에서 말하는 것이 누구인가를 분석한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멘토들의 목소리는 우리를 삶의 방향으로 이끄는 반면, 해가 되는 동일시 속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목소리는 그를 파멸의 방향으로 몰아낼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분석은 언제나 발화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정신분석학은 어떤 기표들이 어떤 무의식적 과정을 통해 그러한 방식으로 발화되었는가를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라캉은 이 과정이 일어나는 범주를 상징계의 영역으로 정의하고, 이를 거울 단계가 포함된 상상계적

과정 속에서의 동일시와 구분한다. 전자가 문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감정적 유대를 설명할 수 있다면 후자는 폐쇄된 공간 속으로 후퇴하는 동일시다. 좀 더 이론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보자.

소타자가 상상계적 동일시의 대상이라면 상징계적 동일시의 대상은 대타자다. 상징계적 차원에서 기표의 연쇄는 말과 언어의 관계 속에서 주체를 대표하게 되며 말을 구성하는 기표들은 기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표들 사이의 차이에 의해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언어의 체계 속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그러한 상징계적 동일시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뜻인 동시에 차이에 의해 구축된 기표의 게임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시를 결코 “통합/화합”으로 간주할 수 없다(46). 그것은 다름에 의해 의미를 생성하는 상징계적 기제의 기본 단위다. 바로 이 차이에 의해 말이라는 개별적 발화가 그 독창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만약 화합과 통합의 환영/통합된 몸을 전제로 하는 상상계적 방식의 동일시라면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이상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정답, 하나의 교재, 하나의 해석, 하나의 생각만이 가능한 세상이다. 다름이 인정되지 않는 곳, 그 닫힌 공간은 상상계적 동일시에 의해 만들어지는 허상이다. 그러나 차이와 어긋남을 전제로 구성된 상징계적 동일시에서는 당연히 ‘참’으로 보이는 명제들조차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개별 주체를 통해 발화되는 기표들은 고유한 차이에 의해 의미를 생성하며 그것은 결코 타자와 공유될 수 없다. 상징계적 대타자와 주체가 공유하는 유일한 단위는 기표이며, 의미는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 생산된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상징계 속의 주체들은 자유롭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일시가 가능할까? 그러한 감정적 유대는 아마도 라캉의 실재적 동일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유로운 주체가 하늘의 법이라는 보편적 정신을 따르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안티고네의 서사에서 확인하지 않았는가? 실재적 차원에서,

서로 다른 주제들은 보편을 향해 고양되며 함께 하나를 꿈 꿀 수 있다.

라캉의 동일시 세미나에서 자유로운 주체가 되기 위한 전제는 상상계적 폐쇄구조를 벗어나는 것이다. 라캉은 닫힌 구조가 열리는 지점을 구멍, 틈, 어긋남, 공백 또는 결여라고 부른다. 공백은 기표의 동력으로서 기표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 효과로서 주체를 생산한다. 정신분석학은 구조를 열어젖히는 틈을 거세라는 개념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기표의 연쇄를 촉발시킨다는 면에서 팔루스가 의미 생성 과정과 연계되었으나, 비록 그것에 의해 욕망이 시작되고 환상 대상의 작동이 촉발되긴 하지만 내 앞에 있는 대상은 결코 내가 욕망하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 더 나아가 그것은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실된 대상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욕망하는 대상에 손을 뻗어 그것을 잡는다 하더라도 욕망의 움직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라캉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욕망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결여하고 있기에 타자와 관련하여 욕망하는 것(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욕망하는 과정(*le désirant*))”(141) 자체라고 말한다. 그가 찾는 대상은 언제나 ‘거세에 의해 이미 상실된 것’과의 동일시를 전제로 한다. A는 A가 아니고, 대상은 언제나 그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생성되었던 의미가, 항상 새로운 대상의 출현과 함께 변화되는 삶의 과정은 바로 팔루스라는 부재하는 기표와 그 거세 과정에 의해 준비된 운명이다. 그러나 이 비극적 운명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은 사유의 자유다. 우리는 더 이상 대상에 갇히지 않게 되고, 상징계 속에 포획되지 않게 되며, 기의의 의미 속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표의 연쇄는 상징계 자체를 극복하는 힘을 가진 구조이며, 이 실제적 구조에 의해 모든 인지적 왜곡에 맞서 새롭게 삶을 만들어가는 도전이 가능해진다.

이 지점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개념이 바로 환상이다. 욕망의 그래프를 설명하며 라캉은 “환상이 이상적 자아(*i(a)*)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291)고 말한다. 실제적 차원에 존재하는 ‘욕망과 환상의 관계’가

상상계 속에서 일어나는 자아와 대상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것인데 이는 환상의 차원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술적 순간을 뜻한다. 즉 환상이란 상상계적 허상처럼 보이던 것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풍경을 이르는 개념이다. 라캉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두 차원으로 제시한다. 하나는 상상계적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상징계 속에 있으나 동시에 상징계에는 속하지 않는 실재적 차원이다. 전자는 주체를 속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를 생성하는 공백이다. 환상은 우리를 속이는 허상을 공백이라는 추동력으로 변화시키는 기제라 할 수 있다. 환상에 의해, 사라진 대상이 다시 주체에게 나타난다. 팔루스를 동력으로 만드는 것 역시 환상의 베일이다.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베일을 드리웠을 때 상징계의 연쇄가 나타나지 않았던가? 즉 기표의 연쇄는 부재하는 대상으로부터 비롯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라지며 부재하는 대상으로 변한다는 것은 주체가 욕망의 게임에 입문할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라 할 수 있다. 세미나 9의 마지막 부분에서 라캉이 피비우스 띠와 같이 ‘결여와 공백의 구조’를 제시하는 위상학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부재, 구멍, 공백, 결여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즉 환상은 상상계처럼 보이지만 고착된 의미로 가득 차 있는 상상계의 허상과는 달리 그 중심에 결여를 배태하고 있다. 라캉은 세미나를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어떤 사람에게 드러내는 기호와 달리 기표는 주체를 대신하여 [다른 주체를 대표하는] 다른 기표에 소구한다”(408)고 말하며 세미나를 마친다. 여기서 주체를 대신하는 기표는 주체 내부에 있으나 주체 이상의 것을 가진 사물로서, 주체를 대신하는/대표하는 기표들의 소통에는 언제나 그 근원에 결여 즉 환상의 차원이 존재한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정신분석학에서 우리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남근중심주의적 시선보다는 정신분석학의 새로운 공리로서의 동일시 가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러한 동일시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분석을 강조해야 한다. 후자에 대한 치밀한 논의 없이는 삶의 방향으로 정향된 진정한 감정적 유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언어분석이란 말 또는 진술만을 분석한다는 뜻이 아니며, 그보다는 말이나 진술을 통해 그 사람의 구조를 분석해낸다는 뜻이다. 언어분석이라는 말로 표현된 정신분석학의 분석 범위에는 물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이나 최순실 녹음파일 분석 등도 포함된다. 즉 정신분석학에서 언어분석이라는 도구가 목표로 삼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신분석학의 모든 이론은 언어분석에 기반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모든 이론이 언제나 궁극적으로 사람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언어분석은 그 사람이 한 말을 통해 말해지지 않은 것, 즉 진술 너머의 구조를 분석해내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정치한 언어분석이 수반되지 않은 정신분석학 이론은 결코 현실 속에서 실천의 도구로 이용될 수 없다. 정밀한 언어분석은 감정적 유대의 형성을 위해서도, 그리고 동일시의 실패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하는 필수적 단계이다. 이론의 기반으로 전제되어야 할 세밀한 분석이 배제되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도출되는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5. 강남역 살인 사건 분석의 문제점

동일시란 타인의 일이 내 일로 느껴지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 의해 우리는 타인과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게 된다.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강남역 10번 출구에 적힌 추모문구들은 시민들이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그녀와 형성한 감정적 유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16년 5월 17일 오전 1시 경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많은 시민들은 강남역 10번 출구에 포스트잇 추모공간을 만들며 이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정의했다. 추모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내가 죽어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당신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왔습니다. 아빠로서, 지도자로서 더욱 좋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요!

저는 오늘 우연히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여성혐오 살인이 아니면 무엇이 혐오란 말인가요.

정말 ‘묻지마 범죄’라면 앞의 ‘남성 6명’은 왜 그냥 보냈을까요? 이젠 ‘여성 선택 범죄’가 맞습니다.

아들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 아들은 여성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해자는 여자라서 죽었습니다. 나일 수도 있었습니다(『경향신문』, 2016. 5.23).

그러나 경찰은 강남역 살인사건을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중 조현병 유형으로 분석했다. 그것은 추모공간에 적힌 많은 추모의 글들과 감정적 유대를 이루지 못하는 분석이었다. 2016년 9월 30일 검찰은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여성의 해코지 등에 대한 진술이나 어머니가 가져다 준 옷을 입지 않는 등 피의자가 보인 행동의 원인을 추적하는 정밀한 분석은 제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는 한 여성이 자신에게 담배꽂초를 던진 일로 평소 앓고 있던 피해망상 증상이 폭발해 살인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했으며 “홀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노리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피의자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

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국민일보』, 2016.9.30).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들이 나열될 뿐, 정작 전격적인 원인의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철저한 원인의 규명 없이는 어디에서 개입할 수 있었는지, 어떤 제도적 결함이 있었으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불가능하다. 여기에는 시민들이 이런 감정적 유대의 끈이 이어지는 지점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과정이 지속되지도 않는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원인의 규명이라는 과거로도, 애도를 통한 새로운 미래로도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사건에 대한 초기 분석에서도 동일한 답답함이 느껴진다. 피의자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은 아래와 같이 피의자 심리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다소 길지만 전문을 인용하는 이유는 각 부분에 대한 정신분석적 시각을 언급하고 정치한 언어분석이 제시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피의자는 외아들로 성장과정에서 부모와 대화가 거의 없이 단절된 생활을 하였으며 청소년기부터 매일 70분 동안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면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는 1년 이상 한 번도 씻지 않는 등 문제 증상을 보였고요. 최근에는 노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자기관리 기능이 손상되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피의자의 정신질환 및 본 건 범행 관련성입니다. 피의자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성별과 관계 없이 어떤 불특정한 누군가가 내 욕을 하는 것이 틀린다라는 환청과 피해망상 증세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특히 2년 전부터는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으로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5월 5일 서빙 업무를 하던 식당에서 위생이 불결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고 5월 7일 다른 식당의 주방 보조로 옮긴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피의자는 이것을 여성이 자신을 음해하여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

하였고 이것이 본 건 범행의 촉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피의자는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올 1월 초에 퇴원한 이후에는 약물복용을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범행 당시에는 정신병적인 증상이 상당 부분 심화되었던 상태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를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것으로 보아 범행 목적성에 비해 범행 계획성은 비체계적인 형태로 정신질환 범죄 행동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합적인 분석 의견입니다. 본 건은 피의자의 망상적 태도, 표면적인 범행동기 부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 없는 전형적인 문지마 범죄 중 정신질환, 조현병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YTN〉, 2016.5.22).

우선 정신분석학적 분석에서 가장 먼저 제기할 질문은 이 사건을 ‘문지마 범죄’로 정의하는 이유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왜 문지마 범죄라고 정의해야만 하는가와 더불어 왜 여성혐오 범죄가 아닌가에 대해 설명해야만 한다.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라면 여성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진술과 더욱 근본적인 원인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 분석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정치한 분석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문지마 범죄 중 조현병 유형이라는 말이 적혀있다. 여기에는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분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신분석학은 위의 문장 각각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 왜 부모와 대화가 거의 없이 단절된 생활을 하였는가? 왜 70분 동안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증상이 나타났는가? 왜 대인기피 증세가 나타났는가? 왜 1년 이상 한 번도 씻지 않았는가? 왜 누군가가 욕을 한다는 생각을 했으며 왜 그 대상이 여성들로 바뀌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이 정신분석학적인 분석이며, 정신분석학적 시각에서 위의 발표는 이유나 원인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으로 간주될 수 없다. 정신분석학을 통해 분석에 접근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더 제기해야 한다. 19개월의 정신과 입원 치료 기간 동안 위

의 질문들 중 어떤 부분들이 제기되었으며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위의 발표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또는 9월 30일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기까지 검찰 수사과정에서 그 중 어떤 질문들이 제기되었으며 얼마나 더 깊이 있는 분석이 개진되었는가? 19개월 동안의 정신과 진료기록, 경찰 수사기록 그리고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피의자가 보인 그러한 증상의 원인이 설명되었는가? 즉 우리는 묻지마 범죄 중 조현병 유형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원인과 그 이유가 설명되었는가를 질문해야만 한다.

박선영은 유영철, 강호순의 연쇄살인사건 분석에서 피의자의 성장배경을 자세히 언급하며 그러한 세부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사실들이 “범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한다(2009: 23). 유영철의 경우 세 편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어 있지만, 강호순이나 정남규의 경우에는 치밀한 분석 논문은 고사하고 참조할 수 있는 논문 자체를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세밀한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와 함께 반드시 그러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그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프로이트는 언제나 정신분석학의 중심에 치밀한 언어 분석을 배치했다. 그것이 인간 정신의 구조가 왜곡되는 파국의 지점을 추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치밀한 언어분석이란 무엇인가? 진술로써 과거를 재구성하고 증상의 원인을 분석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쥐인간 사례는 이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지도를 제시한다. 쥐인간 사례를 통해 프로이트가 제시하는 언어분석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프로이트의 쥐인간 분석 사례(1909)는 환자의 표면적인 진술 및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100쪽 분량으로 분석한 증례이다. 쥐인간은 쥐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주 느끼고 있었다. 쥐를 돈과 동일시하기도 했

고, 우체국 직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단순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일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A 중위와 B 중위를 끌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강박적 계획을 세운다. 모두 그의 증상이다. 위 프로파일러의 분석은 이 모든 행동들을 '강박증에 의한 증상으로 분석되었다'로 결론짓는 것과 같다. 즉 분석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그러나 위에서 최종분석으로 제시된 이 마지막 부분은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프로이트가 분석을 시작하는 곳이다.

긴 분석 과정에서 쥐인간과 프로이트는 쥐, 아버지, 애인, 돈, 결혼으로 이어지는 연상의 흐름 속에서 증상의 원인과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쥐인간이 쥐와 돈을 항상 함께 상기하게 된 것은 쥐(Ratte)와 할부불입금(Rate)의 발음이 같았기 때문이며, 이것은 쥐인간이 자신의 아버지를 노름꾼(Spielratte)이라고 생각한 것과도 관련된다. 아버지는 군대에 근무할 때 공금으로 도박을 하여 빚을 진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에게 급전을 융통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그 친구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낱말의 연상은 결혼(heiraten)으로도 이어지며 여기에도 쥐, 돈과 동일한 음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결혼은 당시 쥐인간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다. 그는 가난한 여자를 만나고 있었으나 아버지는 부잣집 여자를 소개하고자 했다. 그것은 아버지 자신이 한때 대면했던 선택이었다. 그는 가난한 여자를 버리고 부유한 집의 딸이었던, 쥐인간의 어머니를 선택했다. A 중위에게 돈을 갚아야만 한다는 쥐인간의 강박적 사고에서 프로이트는 그가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은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지는 않겠다는 쥐인간의 결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이 결정을 쉽게 실행하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다. 여자를 선택하면 아버지의 돈을 잃고, 아버지를 선택하면 여자를 잃게 되기 때문인데, 이 상황에서 그의 강박적 증상은 아버지와 여자 사이에서 그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를 돕는 마지막 회피책이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의 경우 조현병 진단을 받은 2008년 이후 피의자는 6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으며 총 19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가 진행되었고, 사건 직후 5명의 프로파일러가 투입되어 행동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이 모든 작업의 그 결과, “피의자의 망상적 태도, 표면적인 범행동기 부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 없는 전형적인 문지마 범죄 중 정신 질환, 조현병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망상적 태도의 원인을 밝히거나 범행동기를 밝히는 대신, 분석은 망상적 태도 자체가 원인이며, 표면적인 범행동기가 없으며, 직접적인 촉발 요인도 없다고 결론 내린다. 즉 문지마 범죄이며 그 원인은 조현병이라는 것이다. 근본적 원인을 찾는 대신 조현병을 원인으로 지목하였기 때문에 이후 사태의 전개방향 속에서 법무부는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잘못된 방향성이다. 여기에는 원인을 찾는 분석의 여정이 배제되어 있다.

두 번째로 지적해야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애도의 과정에 대한 공감과 관련된다. 여성혐오살인이 아니라 문지마 살인이라는 경찰의 발표는 시민들이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진행한 애도의 행위를 묵살하는 대응이었다. 라캉은 세미나 6에서 정신분석학적 치유 과정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애도’라고 설명하며 상징계 속에서 애도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주체가 치유된다고 말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진행된 포스트잇 추모운동은 시민들이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에는 『경향신문』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어있던 추모 포스트잇 1004건을 모두 촬영하여 문자화한 작업(2016.5.23)과, 기록의 보존을 위해 서울시가 추모 공간을 서울시청으로 옮기는 행위 역시 포함된다. 이 일들은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다. 여성혐오범죄라는 말에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여성들의 공감과, 피해자와의 동일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런 면에서 이것은 애도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다. 실제로 여성에게 해코지 당한 증거가

없으며 그러므로 이 사건은 여성혐오살인이 아니라 묻지마 살인이라는 분석은 강남역 10번 출구의 추모물결이나 피해자에 대한 시민들의 애도와 그 감정의 구조가 상치된다.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중 조현병 유형이라는 경찰청의 발표에서는 애도의 과정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감지할 수 없다. 더불어 이 사건에서 조현병은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분석은 사건의 이해에도, 재범의 방지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건의 최종 분석에서 치밀한 언어분석과 근본적인 원인이 부재하다는 사실은 정신분석학의 시선으로 접근했을 때 제기하게 되는 가장 주요한 질문이다. 그것은 세월호 진상 규명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우리가 제기해야 하는 동일한 질문이기도 하다. 프로이트가 강조하는 감정적 유대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정치한 정신분석학적 분석과 원인에 대한 세세한 규명이 수반된다. 이 과정이 완수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시간이 다하기 전에 우리를 떠난 이들을 애도할 수 있게 된다.

6. 나오며: 혁명의 시간을 사는 우리를 위하여

프로이트의 동일시 개념은 동일시에 대한 라캉의 설명을 경유하여 도달할 때 그 실천적 측면이 발휘된다. 만약 기표와 상징계의 중심에 배치된 공백을 강조하지 않고 동일시 개념을 설명한다면, 우리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감정적 유대를 상상계적 차원에 배치할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러한 지도 속에는 나치당을 지지하는 감정적 유대도 포함된다. 상상계적 유대에는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표가 주체를 대표하는 경우, 다양한 의미와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주체가 그 스스로를 대표한다고 착각하는 상

상계적 상황에서는 단일한 의미만이 존재한다. 히틀러가 범이 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러한 상상계적 허상에 대한 착각 때문이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정신분석학은 라캉의 이론을 경유한 프로이트의 사유를 뜻한다. 프로이트가 강조한 감정적 유대로서의 동일시와 그러한 문화의 형성은 개인의 폐쇄적 삶이 에로스의 영역으로 확장되도록 도모하는 과정이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제이기도 하다. 물론 그것은 라캉이 정신분석학의 근본 기제로 간주하는 언어 분석에 의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즉 기표 분석의 차원에서 사건에 접근하여 정치한 분석을 통해 사건의 세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진정한 동일시의 과정에는 언제나 사건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수반된다. 가능한 모든 세부에 대해 치밀하게 질문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 진실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일은 타인의 슬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적 유대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작업이다. 이 여정 속에서 정신분석학은 결코 팔루스를 옹호하며 남근중심주의적 시각을 대표하는 폭력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보다는 페미니즘의 편에서, 타당하고 보편적인 원리에 근거한 애도의 행위를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신분석학은 진정한 동일시의 문화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 도구이자, 치밀한 분석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것은 정신분석학이 혁명의 시간을 사는 우리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강응섭(1999), 『동일시와 노예의지: 프로이트와 라캉의 동일시 이론과 에라
스무스와 루터의 논쟁』, 서울: 백의.
- 박선영(2009), “한국 여성연쇄살인사건의 여성학적 재조명: 유영철,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사례분석”, 『젠더와 문화』, 제2권 1호, 7-37쪽.
- 윤지영(2013), “욕망의 시학은 가능한가: 잉여(surplus)와 퀴어성의 연계성에
대하여”, 『한국여성철학』, 제20권, 121-141쪽.
- 이동욱(2014), “아버지 양육 담론의 한계와 대안적 부상: 행복한 가족과 친
구 같은 아버지를 넘어서”, 『젠더와 문화』, 제7권 2호, 147-180쪽.
- 이해진(2011), “아버지에 갇힌 주체에서 어머니로 열리는 주체”, 『젠더와 문
화』, 제4권 1호, 131-165쪽.
- 호머, 손(2006), 『라캉 읽기』, 김서영 옮김, 서울: 은행나무, Homer, S.(2005),
Jacques Lacan, London: Routledge.
- Freud, S.(1909), “Notes Upon a Case of Obsessional Neurosi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X, London: The Hogarth Press.
- _____(1933), “Why War?”,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XXII, London: The
Hogarth Press.
- Lacan, J.(1966/2006), *Écrits*, trans. B. Fink,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 _____(1991),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II: The Ego in
Freud’s Theory and in the Technique of Psychoanalysis, 1954-1955*,
ed. J. A. Miller, trans. S. Tomaselli,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_____ (2008), *L'identification, Séminaire 1961-1962*, 미출간 세미나 회
원용 녹취록.

〈신문기사〉

『경향신문』, 2016.5.23, “강남역 10번 출구 포스트잇, 경향신문이 1004건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국민일보』, 2016.9.30, “검, ‘강남역 살인 사건’ 범인에 무기징역 구형: “예
쁜 딸 잃은 부모의 심정 헤아려 달라””.

〈시청각 자료〉

〈JTBC 뉴스룸〉, JTBC-TV, 금 19시 40분, 2016.12.9.

〈YTN〉, 일 10시, 2016.5.22, “‘강남 문지마 살인’ 피의자 심리분석 결과(발
표 전문)”.

(논문 투고일: 2016.10.31, 심사 확정일: 2016.12.05, 게재 확정일: 2016.12.15)

〈Absrtact〉

A Theoretical Basis for Building a Culture Founded on Strong Emotional Ties: Centering around the Concept of Identification

Kim, Suh-Young*

According to Freud, the strongest weapon in the fight against war is the emotional tie between members who share the same structure of feelings. Freud has referred to this tie as ‘identification’. This paper revisits this theoretical prospect of psychoanalysis, centering around the concept of identification. This is an attempt to shift the theoretical focus from such concepts as the Oedipus complex, the phallus and castration, to that of emotional ties and identification. For this reason, the paper introduces Freud’s “Why War”, in which he mentions the term, ‘identification’, in relation to war and the death drive, and then moves on to examine Lacan’s 9th seminar of identification in which he further examines the concept. Finally, this is applied to analysis of the emotional ties which have grown among us in recent year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he practical potential of psychoanalytic theories, particularly with the notion of identification as the basis of the strong emotional tie in the formation of a more therapeutic culture.

Key words: psychoanalysis, Freud, Lacan, identification, emotional tie

* Associate Professor, Ingenium College, Kwangwoon University